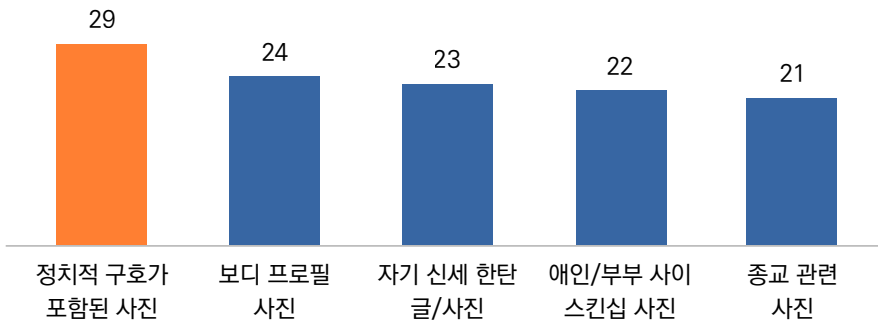




## [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대한 인식] 직장 동료 프로필 사진 중 불편한 사진, '정치적 신념 드러낸 사진!'

- 사실상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고, 직장인들이 업무할 때에도 각종 메신저로 소통하는 시대이다. 이러한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에 대한 직장인의 인식을 다룬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 살펴본다. 직장 동료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 중 불편한 사진을 물어본 결과 '정치적 구호가 포함된 사진'(29%)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최근 국내 정치 이슈로 이념 논쟁이 심각한데 정치적 색깔이 묻어나는 프로필 사진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.
- 반면, '종교 관련 사진'은 21%로 5위를 차지했다.

[그림] 직장 동료의 불편한 메신저 프로필 사진 (직장인, 중복응답, 상위 5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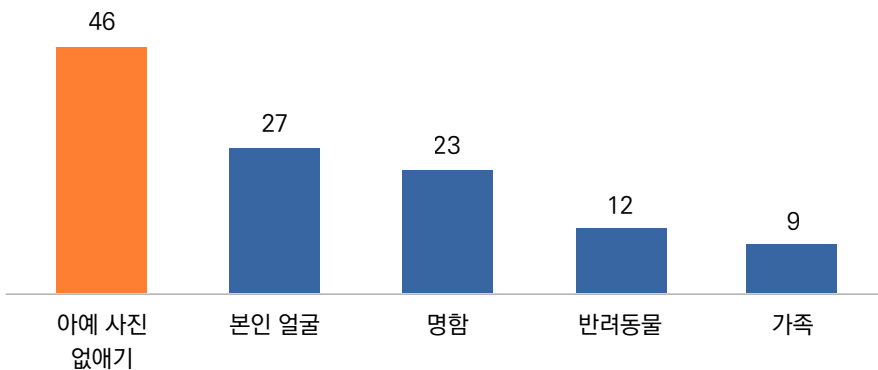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조선일보, "직장 동료의 노출 심한 카톡 프사...누가 좀 말려줘요", 2025.02.13. (20~50대 직장인 1155명, 온라인 조사, 2025.02.07.-02.10.)  
(<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weeklybiz/2025/02/13/XQZDE6NLQ5GT3K6C3TYQ7V2ASU/>)

## 바람직한 업무용 프로필 사진, '아예 사진 없는 프사!'

- 이번에는 '업무용으로 쓰는 메신저에서 가장 바람직한 프로필 사진은 무엇인지'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.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'아예 사진을 올리지 않은 메신저 프로필'(46%)이었다. 일하는 상황이나 직장 분위기에 따라 점잖은 프로필 사진을 써야 한다면 업무용과 개인용 프로필을 구분할 '멀티 프로필'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.

[그림] 가장 바람직한 업무용 프로필 사진 (직장인, 중복응답, 상위 5위, %)



※출처 : 조선일보, "직장 동료의 노출 심한 카톡 프사...누가 좀 말려줘요", 2025.02.13. (20~50대 직장인 1155명, 온라인 조사, 2025.02.07.-02.10.)  
(<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weeklybiz/2025/02/13/XQZDE6NLQ5GT3K6C3TYQ7V2ASU/>)